

[2021-56호]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	
배포일시	2021. 10.29(금)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전시	
연락처	323-936-3014/tammy@kccla.org	담당자	Tammy Cho	

제17회 KAFA 미술상 공모전 수상자 전시: 클럽 호모힐 (Club Homo Hill) 개최

카파(KAFA) 미술상 수상자 박영준



- ▶ 전시명 : 제17회 KAFA 미술상 공모전 수상자 전시 "Club Homo Hill"
- ▶ 카파(KAFA) 미술상 수상자 : 박영준
- ▶ 전시기간 : 2021.11.5(금)-11.19(금) /개막식 : 2021.11.5(금) 18:30-20:00
- ▶ 장 소 : LA한국문화원 아트갤러리/ 5505 Wilshire Blvd. L.A., CA 90036
- ▶ 주최(후원) : 카파미술재단(Korean Arts Foundation of America), LA한국문화원
- ▶ 심사위원 : 리타 곤잘레스(LA카운티미술관 현대미술부 큐레이터),
헬렌 몰스워스(LA현대미술관 전 수석 큐레이터),
얀 튜물러(아트포럼 비평가겸 큐레이터)
- ▶ 게스트 큐레이터: Audrey Min
- ▶ 전시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4 전시담당 Tammy Cho
KAFA 951-234-1793 노정란
- ▶ 전시장 개장 : 월-금 10:00 -17:00 (*11.11(목)은 Veterans Day로 휴무)

LA한국문화원(원장 박위진)은 카파미술재단(Korean Arts Foundation of America, 회장 노정란)과 함께 11월 전시로, "제17회 KAFA 미술상 공모전 수상자 전시: *클럽 호모 힐* (The 17th Korea Arts Foundation of America Award Recipient Exhibition: *Club Homo Hill*)" 전시회를 11.5(금) 부터 11.19(금)까지 LA한국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전시명 *클럽 호모 힐 (Club Homo Hill)* 은 가장 뜨거운 새로운 퀴어 유토피아 공간으로서, 이주의 파열과 동경, 우리를 우리의 혈통으로부터 갈라놓는 고통, 그리고 가족과 국가의 우리 존재에 대한 불(不)인정으로부터 탄생했다. 클럽 호모 힐은 이것의 매개적, 복합적, 혼합적, 그리고 변형적인 성격을 포용하여 무수한 신체들이 전이되고, 쏟아지고, 부서지고, 합쳐지며, 탈바꿈하도록 돕는다. 이의 다양한 면은 문화의 분열을 아우를 수 있게, 그리고 불확정성의 공간에 거주할 수 있게 해준다. 이의 구멍들은 특정 제약들과 방해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 새로운 신체와 새로운 정체성, 소속과 존재의 방식들을 물질화할 수 있게 해준다. 클럽 호모 힐은 다중성, 모순, 시간적 공간적 얽힘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적인 집단성의 모임으로, 신체와 장소, 국가 개념을 통과하고, 또 넘어선다. 통제하거나 감시당할 수 없는 어떤 집단이다.

이번 전시는 2021. 11.5(금) 18:30 개막식을 시작으로, LA한국문화원 아트 갤러리에서 11.19(금)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LA문화원은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통해 관람시간 별 입장 인원을 제한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마스크 착용 점검 및 발열 검사 등 사전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문의는 LA한국문화원 전시 담당 태미 조 323-936-3014로 연락하면 된다. /끝/

***카파미술재단(Korean Arts Foundation of America/KAFA)**

KAFA는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1989년 미술애호가들과 컬렉터들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이다. 1992년부터 4년 동안 매년 1명씩 당선자를 선정했으며 1996년 이후에는 2년에 한번 카파상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까지 17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수상자는 \$15,000 상금과 더불어 LA한국문화원에서의 전시기회가 주어진다.

▶ 곽영준 (카파(KAFA) 미술상 수상자)

곽영준 (1984년 뉴욕 퀸스 출생, 현 로스앤젤레스 거주 및 활동)은 남가주대학에서 2014년 미술 석사학위를 받고, 시카고대학에서 2010년 인문학 석사를, 그리고 시카고 예술대학에서 2007년 미술 학사학위를 받았다. 영준은 퀴어, 트랜스, 여성, 유색인종 예술가 및 퍼포머 커뮤니티와 협업하여 실험적인 퍼포먼스를 여는 방랑 뷰티 살롱이자 플랫폼인 “유턴트 살롱”의 설립자이며, 전자-춤-소음 밴드 “Xina Xurner”의 리드 퍼포머이다.

전시작품 내용:

이리 오세요...말하지 않을게요. “Come inside...I won't tell.”

곽영준은 글로리홀 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클럽 호모 힐로 우리를 손짓한다. 양쪽으로 나있는 구멍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웅홀이 되어 신뢰와 위험요소의 전달자가 된다. 동시에 우리가 서로를 보고, 보여질 수 있는 작은 구멍으로 작동한다. 반짝이는 “vaginis”에 박힌 반구형의 감시용 거울은 대조를 이룬다. 키스에 갇힌 두 여성의 실루엣과, 보살핌과 감시 모두의 어안렌즈, 즉 덧없는 환상 속에 살아있는 현실을 왜곡한다.

우리는 신체의 파편들 사이를 헤맨다. 임시적인 장벽-정액-글로리홀 표면에 걸쳐진 손, 튀어나온 발기조직을 부여잡는다. 재 조합된 디스코 볼은 번덕스럽고 굴절하는 빛을 내보내고, 우리는 그 빛이 공간에 공명하며 생긴 움직임의 환영을 부여잡는다.

클럽 호모 힐에는 미시감이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터진 디스코 볼이 분열되지 않은 사춘을 떠올리듯이, 서울의 호모 힐(이태원 유흥가의 게이 동네)과 선창-제창을 주고받는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전위이며, 한 번 제거되고 재해석된 한국이다.

이러한 변화와 퀴어 유령에 귀신들린 텅 빈 클럽은 이 유령들의 윤곽을 쫓아 그들의 구불진 길을 따라갈 수 있게 우리를 친절하게 안내한다. 우리는 부재, 신체의 압박에 대한 갈망, 파멸과 창조와 춤 속에서 함께하고 흠어지는 광란의 희열에 의해 점유된 공간을 공유한다. 과거의 유령이라기보다, 이 유령들은 항상 무언가 되고 있는 상태의 세계를 전주하고, 감질나게 가까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현재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긴다.